



데뷔 7주년을 맞은 걸그룹 티아라(보람·지연·효민·은정·큐리·소연)가 새 미니앨범 ‘리멤버’를 내고 1년 3개월 만에 컴백했다.

국내 공백기처럼 보였지만 이들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활동했다.

최근 용산구 이태원에서 인터뷰한 멤버들은 “중국에서 투어 콘서트를 했고 예능에도 출연하고 광고도 찍었다”며 “지난 9월 벤츠아레나에서 열린 중국 투어 마지막 공연 때는 1만2000석을 매진시켰다”고 떠올렸다.

이들은 2014년 중국의 유명 2인조 그룹 ‘젯가락형제’의 ‘작은 사과’를 리메이크하며 현지에서 이름을 널리 알린 후 ‘보핍보핍’, ‘롤리폴리’, ‘러비더비’ 등 국내 히트곡까지 사랑받았다.

중국 팬카페 회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해 국내 여자그룹으로는 1위이며, 남자그룹까지 합하면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은정과 소연은 “계획을 세웠다기보다 운이 좋았다”며 “한류 마지막 열차를 타며 일본에 진출했듯이 중국에서도 운 좋게 물 흐르듯이 활동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멤버들은 중국 활동을 하며 전보다 초심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을 일으켜주는 원동력이 팬이란 걸 느껴 이번 앨범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내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신나는 댄스곡 대신 미디엄 템포의 팝을 타이틀곡으로 정했다.

한국어와 중국어 버전으로 실린 타이틀곡 ‘티아모’(TIAMO)는 국내시장에서 주춤한 티아라가 인기를

반응하려는 곡이라기보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노래다.

“피아모가 이탈리아어로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간 ‘뽕끼’ 가득하거나 복고풍 노래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거품을 뺐 심심하고 담백한 곡이에요. 가사에도 아련함이 느껴지죠. 티아라 같지 않은 색깔이어서 부담됐지만 시도하지 않은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지연·은정)

멤버들은 팬들도 자신들로 인해 함께 아프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티아라는 2012년 한 멤버의 탈퇴 과정에서 ‘왕따설’과 불화설에 휩싸이며 대중에게 ‘미운털’이 박혔고 승승장구했던 인기도 주춤해졌다.

소연은 “그때가 고비였다”며 “계산해보니 그 사건 이전보다 이후의 시간이 더 길어졌더라. 되새겨 마음 아파하려 하진 않지만, 얼마 전 멤버들과 예전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 그때 이후 팀도, 회사도 위축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자신감 있게 새로운 콘셉트를 시도하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효민도 “멤버들과 힘든 일을 같이 겪으며 버틸 수 있었다”며 “7년 넘게 활동했는데 사랑받은 시간보다 힘든 시간이 더 긴 걸 깨닫고 서로 의지하며 잘 극복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 서로에 대해 잘 알아 다룰 일도 없다. 소속사와도 두 번이나 재계약했다”고 팀워크를 강조했다.

멤버들은 그 시점 이후 “받아들이는 것이 습관처럼 됐다”고 말했다.

“최선을 다해보고 받아들이길 건 받아들이게 됐어요. 아직 유명 포털사이트 댓글 많은 연예인 5위안에

든대요. 하지만 여전히 응원해주는 팬들이 있으니 책임감을 놓을 수 없어요. 남들이 보면 멘탈이 강하다고 하는데 다 부서져 사라진 건지도 모르겠어요.”(은정, 소연)

멤버들은 “우리끼리는 ‘애증의 티아라’라고 한다”며 “한때는 싫고 지치고 아팠지만 지금은 전부이고 가장 소중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마지막 앨범이라고 생각한 팬들도 있는데 절대 아니다”며 “젝스키스 등 1세대 선배들이 오랜만에 활동을 재개했고, 신화 선배처럼 장수하는 그룹도 있다. 결을 지켜준 팬들에게 보답하고 발전하는 그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에는 에이치오티(H.O.T), 젝스키스, 지오디(god) 등 1세대 그룹을 보며 꿈을 키운 멤버들도 있다.

소연은 “젝스키스를 보며 꿈을 키웠다”며 “올해 ‘드림 콘서트’에서 젝스키스 선배님들이 리허설하는 모습을 보며 시공간을 초월한 느낌이었다. 학창시절 꿈의 무대던 ‘드림 콘서트’ 무대에 함께 했으니 성공한 팬”이라고 웃었다.

열애설로 화제가 된 멤버들도 있다.

배우 이동건과 교제 중인 지연은 “잘 만나고 있다. (남자친구가) 지금 출연 중인 드라마(KBS 2TV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를 보여 응원하고 있다”고 콕콕 찌른다.

최근 일본 웨이크보드 선수 쇼타 데즈카와 열애설에 휩싸인 소연은 “남자 친구는 아니고 친하게 지내며 친전히 생각하고 있는 사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영화같은 현실에 ... 극장 찾는 발길 똑!

지난달 보다 하루평균 관객수 35% 줄어

힐링·시사 다큐 등 현실 반영 소재 호응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사태가 현실 속에서 벌어지면서 극장을 찾는 관객들의 발길도 줄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영화가 ‘날짜전쟁’까지 펼쳐며 11월에 개봉일을 잡은 터라 예상치 못한 관객 수 급감에 영화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1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달 1~12일 하루평균 관객 수는 36만5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하루평균 관객 수 55만3550명보다 35%나 급감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11월 1~12일)의 43만8357명과 비교해서도 18% 줄었다.

일주일 가운데 극장이 가장 붐비는 날은 토요일이지만, 주말 쏠쏠집회 여파인지 토요일 관객이 급감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서울 광화문에서 1차 쏠쏠집회가 열린 지난달 29일 하루 극장 관객 수는 111만5170명이었으나 2차 집회가 개최된 이달 5일은 77만2467명으로 급감했다.

서울 중심가에 100만 인파가 모인 3차 집회가 열린 12일에는 극장 관객 수도 62만

121명으로 똑 떨어졌다.

영화계 관계자는 “영화 소재로도 쓰기 어려운 황당한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볼 맛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런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거나 ‘힐링’을 주는 다큐멘터리가 호응을 얻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무현, 두 도시 이야기’는 개봉 17일째 10만 명을 돌파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스크린 31개(67회 상영)로 출발했으나 관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스크린 수가 132개(429회)까지 늘어났다.

지난달 13일 개봉한 ‘자백’도 총 관객 12만5000명을 불러모으며 시사 다큐의 흥행 역사를 다시 쓰는 중이다.

시각장애인인 된 개그맨 이동우와 진행성 근이양증으로 사지가 마비된 임재신씨,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나며 서로 위로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소’도 다양한 영화 흥행 순위 5위에 오르며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

MBC ‘캐리어를 끄는 여자’ 내일 종영

2회 연속 방영

MBC TV는 월화극 ‘캐리어를 끄는 여자’를 15일 2회 연속편성해 종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종영까지 3회가 남은 ‘캐리어를 끄는 여자’는 15일 밤 10시부터 15화와 16회가 연속 방송된다.

최지우, 주진모 주연의 ‘캐리어를 끄는 여자’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차금주의 인생 역전을 그린다.

지난 9월 26일 6.9%로 출발한 시청률은 이후 8~9%대에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면



서 월화극 시청률 2~3위를 오갔다.

지난 8일 13화의 시청률은 9.1%로 집계됐다. 동시간 경쟁한 SBS TV ‘남남닥터 김사부’는 10.8%, KBS 2TV ‘우리집에 사는 남자’는 6.4%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결여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세나 봄날>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0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4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월화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토크콘서트 화통
12	00 KBS 뉴스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30 KBC 12 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열린공간 토크 Talk (재)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방송의 전설 55 별별가족	00 이웃집 찰스 (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닥터 365
2	00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	00 키즈 사이언스 6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재)
3	40 코리언 지오그래피 플러스 55 토크생활제조	00 자정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지권	00 MBC 뉴스 10 토크? 토크! 키즈스쿨 55 깨미탐험대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디>(재)	30 특집 SBS 뉴스 이슈진단
5	00 KBS 뉴스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 패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교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라!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SBS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8	25 별난 가족	30 글로벌24 55 재보자들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00 월화 특별기획 <캐리어를 끄는 여자>	00 월화미니시리즈 <남남닥터 김사부>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 특선다큐 <교육소멸 보고서, 35년의 기록>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 길	10 꽃놀이패
12	30 인간극장 스페셜 (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5 스포츠특선 카센터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동물기행 - 캄보디아 코끼리>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투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당 유치원 1~3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출동! 슈퍼핑크	09:30 이말!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 (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배추김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스페셜 프로젝트 13:40 출겨운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시계마을 티키토!	14:25 허풍선이 과학쇼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요술 상자(2) 15:45 출동! 슈퍼핑크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6:45 덩동당 유치원 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큐 오늘 <멕시코 맛기행> 20:50 세계테마기행 <올라(ila), 포르투갈> 21:30 한국기행 <은비령로드-은비령 가는 길> 21:50 EBS 다큐 프리덤 <교육대기획 시험 - 시험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가> 22:45 달라졌어요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신기한 동물 전쟁, 두견울법>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24: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11월 14일(음 10월 15일 庚子)			
 子	48년생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떠 있는 형상이다. 60년생 지혜가 있다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리라. 72년생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어야한다. 84년생 지금 상당한 쓰러림이 있다더라도 감내할 만한 가치는 충분이 있다. 행운의 숫자 : 92, 14	 午	42년생 옛 인연을 소중히 여김이 바람직하다. 54년생 무리한 판단을 자제하고 순리적으로 처리함이 해법이다. 66년생 현안을 타결하느냐 못하느냐가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다. 78년생 합리적이야하면 알찬 결실을 맺는다. 행운의 숫자 : 21, 45
 丑	49년생 주변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고 초지일관 하자. 61년생 방법과 강도에 따라서 결과는 제각각이다. 73년생 지나치다면 반드시 역효과가 나는 법이다. 85년생 어려운 상황 뒤에 길사가 이어질 징조이다. 행운의 숫자 : 50, 12	 未	43년생 애매하다거나 반거뿔더라도 머무지 말고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결정해버리는 것이 낫다. 55년생 그냥 두고 보자. 67년생 명분에서 이글리면 실속이 없어지는 법이다. 79년생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44
 寅	50년생 기회는 너무도 빨리 지나갈 것이니 눈여겨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 62년생 다다익선임을 알라. 74년생 진술했을 때 더 설득력이 있는 법이다. 86년생 다양한 측면에서 큰 폭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행운의 숫자 : 39, 34	 申	44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라. 56년생 쌍방이 피해를 볼뿐이 아니어하였든지 간에 소모적인 국면은 피해야 한다. 68년생 관재 구실을 주의해야겠다. 80년생 기존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버리고 확실히 전환해 보자. 행운의 숫자 : 33, 06
 卯	51년생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이를 감안하고 처리만 잘한다면 결실로 이어진다. 63년생 터질수록 더욱더 완벽해질 것이다. 75년생 일단 정지한 후에 재시도하는 것이 낫겠다. 87년생 진정한 마음의 전달이 전환점을 마련한다. 행운의 숫자 : 78, 43	 酉	45년생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애를 태웠던 고민거리가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 57년생 마무리까지 확실해야 비로소 취하게 된다. 69년생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라. 81년생 기조는 유사하니 일관성 있게 밀고 나아가는 것이 옳다.행운의 숫자 : 95, 60
 辰	40년생 예의 주시하라. 52년생 내일을 위해서 아껴두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64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선회하는 것이 유리하다. 76년생 욕심을 낸다면 도리어 화를 당하라. 88년생 구체적이지 않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30, 64	 戌	46년생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알면서 새롭게 조망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58년생 가볍게 넘겨도 될 일이다. 70년생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82년생 다자 관계까지 아우르는 것이 연쇄적인 효과를 낳는다. 행운의 숫자 : 09, 57
 巳	41년생 확실히 변화시켜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53년생 최소한의 요건에 맞추도록 하자. 65년생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할 수 있느니라. 77년생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리라. 89년생 기대해도 좋다. 행운의 숫자 : 10, 49	 亥	47년생 가까이할수록 손해이니 속히 정리하자. 59년생 당연시 해왔던 것 속에는 의외의 맹점이 있다. 71년생 결실을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83년생 경계성이 있느냐 아니냐 비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행운의 숫자 : 58, 3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